



최종원(서울신대)

1. 서론

본 논문은 전승사적으로 창세기 안에서 강조되는 ‘화해 운동’이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경의 형성사와 그 최종 본문의 형성 시기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오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해 운동’은 창세기에서 적어도 4가지의 전승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아브라함과 롯의 화해(창 13장), 야곱과 라반의 화해(창 31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창 33장), 야곱의 형제들과 요셉의 화해(창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 07915656).

45장과 50장). 창세기에 집중된 화해의 요소들은 이스라엘 주변국들과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종교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타국민들에 대한 배타적 입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에돔에 대한 적대와 화해는 야곱 전승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구약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¹⁾

구약성서에서 대립과 화해는 이스라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가 예언자들의 선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벨하우젠(Wellhausen)의 관점처럼, '법이 예언보다 늦다'(lex post prophetas)는 그의 명제가 어떻게 오경 안에서 그리고 예언서와 성문서 안에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가 바로 '화해 신학'이다.

과연 '화해 신학'이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적대 관계 혹은 화해 관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조가 신명기계 신학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역대기 신학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복합적인 문학적 산물인지가 본 연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내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왜 '화해 운동'이 나타나야만 했는지를 이해한다면, 오경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오경 신학은 제사장계와 비제사장계의 대립적 구도로 연구되고 있다. '화해 신학'은 어떠한 신앙 체계를 강조하는 그룹일까?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종교사적으로 '화해 신학'의 주요한 흐름을 추적하며,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현재 오경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에돔 전승'에 집중하여 연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1) 범 성서적 근거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라. B. Dicou, *Edom, Israel's Brother and Antagonist. The Role of Edom in Biblical Prophecy and Story* (JSOTsup 169; Sheffield: JSOT Press, 1994).

2. 연구사

창세기에서 화해 신학과 관련된 본문은 다음 네 가지의 전승 이야기에 집중된다: 아브라함-롯 이야기(창 13장), 야곱-라반 이야기(창 31장), 야곱-에서 이야기(창 33장), 야곱 가문-요셉 이야기(창 45; 50장).²⁾ 아브라함-롯의 이야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야곱-라반 이야기는 아람 족속을 배경으로 하며, 야곱-에서 이야기는 에돔 족속, 야곱 가문-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족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³⁾

에돔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사장과 비제사장 계열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터스(Van Seters)의 연구는 흥미롭다. 그는 신명기 2장 4-5, 12, 22절에서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이주와 정복’이 신명기사가적 관점과 제사장적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점검한다.⁴⁾ 오경에 나타난 화해 운동은 비제사장 계열(non-p)의 신학을 대변해 주고 있지만, 아직 이 사고가 어떤 신학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경 형성과 야곱 전승을 다루고 있는 호세아 12장의 연구가 드 프뤼(Albert de Pury)에 의해서 새롭게 제안되었다.⁵⁾ 그는 호세아 12장이 야곱 전승을 포로기와 다루고 있고, 동시에 야곱이 아람으로의 도피하는 모습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⁶⁾ 이런 점으로 접근한다면, 호세아서는 야곱 전승을 여타 다른 예언서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

2) G. W. Coats, "Strife without reconciliation: A narrative theme in the Jacob tradition", R. Albertz, H. P. Müller & H. W. Wolf (eds.), *Werden und Werken des Alten Testament*, Festschrift C. Westermann (Neukirchener: Neukirchen-Vluyn, 1980), 82-106.

3) G. von Rad, *Genesi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1981).

4) J. van Seter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redaction of the Pentateuch",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uven: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1991), 58-77.

5) A. de Pury, "The Jacob Story and the Beginning of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Th. B. Dozema and K. Schmi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SBL Symposium Nr. 34: Atlanta: SBL, 2006), 51-72.

6) 김필희, "호세아 12장의 야곱전승", 「구약논단」 16권 3호(2010년 10월), 216-236.

을 포로기 시대의 편집적 사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야곱 전승이 포로기 시대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예언서 본문들에서 타민 족과의 화해하는 모습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여전히 야곱과 에돔 전승 이야기는 제사장계 문서가 아니라 비제사장계에 속한다는 것이 오경 형성에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구약학계는 세계적으로 로이스(Reuss), 그라프(Graf), 쿠어넨(Kuenen) 그리고 벨하우젠으로 대표되는 고전 문헌 가설에 의하여 19세기가 지배적이었던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고전문헌가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설들(양식사, 전승사, 전통사, 문학비평, 편집비평 등등)이 등장하면서 학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쉽게 고전 문헌 가설을 대체할만한 이론들은 약했고,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 70년대를 전후 학계는 새로운 이념적 영향아래 오경의 형성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⁹⁾ 기존의 야웨계 문서는 바벨론 포로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야웨계 이후의 저자에 의하여 오경은 마지막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¹⁰⁾ 소위 비제사장계의 문학은 제사장계의 문학적 사고와 대치되거나 보완되어 성경의 본문과 전체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는 연구의 경향들이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안에서 ‘화해 운동’은 오경 형성에 주목할 만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화해 운동’이 비제사장계에 속하면서 정치 윤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경의

7) A. de Pury, "Le cycle de Jacob comme légende autonome des origines d'Israël",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uven: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1991), 10-21; P. Bienkowski, "Edom and Edomite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22 (1992, 2), 139-142.

8) W. H. Schmidt, "Elementare Erwägungen zur Quellenscheidung im Pentateuch",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E. J. Brill, 1991), 222-45.

9)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16), 236-237; 참조, 조지프 블랜킨슨, 『모세 오경-성경의 첫 다섯 권 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서와 함께, 2006), 21-46.

10) Ch. Levin, *Der Jahwi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436 이하.

11) F. Crüsemann, "Dominium, guilt and reconciliation: The contribution of the Jacob narrative in Genesis

형성의 시기가 페르시아 말기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¹²⁾ 최근에 블렌킨소프(Blenkinsopp)의 ‘유대교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¹³⁾, 역대기 역사가의 관점에 국한된 점으로 오경의 형성과의 관계를 입증해주지 못한다. 물론 반 시터스의 범헬라주의적 사건의 성서적 연구는 주목할 만한 연구라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연구들의 초점은 야웨계 문서가 하나의 전승으로 전해졌는지 아니면 포로기 산물로서 야웨계 작품이 탄생했는지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개척자인 슈미트(Hans Heinrich Schmid)의 단행본인 『소위 야웨계 저자』에서 그는 위 개념을 오경 전체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야웨계 저자의 작품들은 신명기계 저자들의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오경 연구는 주로 신명기계 편집자들에 의하여 큰 이야기들이 서로 결합되었다고 주장되었으나, 오히려 제사장계 편집자의 의도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¹⁵⁾ 이 두 줄기의 신학적 대립이 현대 구약학계의 주도적인 연구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1981년에 롱(Long)은 신명기사가적 관점에서 다윗의 왕위계승사에 나타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한 가문의 형제들의 난투극에 대하여 연구를 했다.¹⁷⁾ 이 연구의 결과는 신명기사가적 관점에서 갈등을 소개하고

to political ethics”, *Semia* 66 (1994), 67-77; T. Seidl,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ner controversies and tensions as places of Israel’s self-conception in the patriarchal traditions of Genesis”, *Old Testament Essays* 26(3) (2013), 841-842; F. Snyman, “Aspekte van versoening in die boek Genesis”, in: <http://www.hts.org.za/doi:10.41-2/hts.v71i1.2984>.

- 12) 참고. E. Blum, “Gibt es die Endgestalt des Pentateuch?”,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uven: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1991), 46-57.
- 13)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14) J. van Seters, “The Primeval Histories of Greece and Israel Compared”,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0 (1988), 1-22.
- 15) 이 견해는 렌토프의 입장에서 시작한다. 이에 다음을 참고 하라. 장 루이스카, 윌글, 248.
- 16) 제사장적 역사의 끝을 알리는 본문에 대한 증명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블렌킨소프는 여호수아 18-19장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조지프 블렌킨소프, 윌글, 301.
- 17) Burke O. Long, “A Darkness between Brothers: Solomon and Adonijah”, *Journal for the Study of*

있지만, 화해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새로운 에돔의 증거를 제안한 비엔코브스키(Piotr Bienkowski)의 주장은 흥미롭다.¹⁸⁾ 그는 에돔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에돔의 존재가 역사에서 앗수르바니팔(BC. 667)의 비문에 독립국가로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에돔의 수도인 부사라(Busayra)가 BC. 6세기 경에 파괴되었다고 벤넷(C.-M. Bannett)이 제안한다.¹⁹⁾ 그런데 에돔의 수도인 부사라에서 아테네식의 도자가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쓰여진 썬기형 문자를 근거로 에돔의 생존이 적어도 BC. 4세기경까지 지속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다리우스 3세(BC. 335) 시대까지 추정되는 썬기형 문자판이 요르단의 타일란(Tawillan)에서 발견되었다.²⁰⁾

고고학적 자료의 도움을 받아 비제사장계의 본문인 야곱과 에서의 화해(창 33장) 이야기는 적어도 신명기 2장의 배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 시터스는 요단강으로의 이주에 모압과 암몬, 특히 에돔과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점에서 신명기사가적 편집이 오경의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믿고 있다.²¹⁾

여기서 블랜킨슨은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오경의 형성을 그려볼 수 있는 도안으로 열두 소예언서의 형태가 스가랴 9장 1절, 12장 1절, 그리고 말라기 1장

the Old Testament 19 (1981), 79-94. 더 참고할 책은 다음과 같다. Ku, Cha-Yong, *Weisheit in der Thronfolgegeschichte Davids. Eine literarkritische und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der Weisheits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ihrer Ironisierung* (Diss.; Bonn, 2009).

18) P. Bienkowski, "New Evidence on Edom in the Neo-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J. A. Dearman and M. P. Graham,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Essays o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in Honour of J. Maxwell Miller* (JSOTSup 34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98-213.

19) C.-M. Bannett, "Excavations at Buseirah(Biblical Bozrah)", J. F. A. Sawyer and D. J. A. Clines (eds.), *Midian, Moab and Edom: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Late Bronze and Iron Age Jordan and north-west Arabia* (JSOTSup, 24; Sheffield: JSOT Press, 1983), 9-17; J. R. Bartlett, "Edom and the fall of Jerusalem, 587 B.C.",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4 (1982.1), 13-24.

20) P. Bienkowski, *윗글*, 213.

21) J. van Seters, *윗글* (1991), 69.

1절이 “신탁-주님의 말씀”(마사 드바르 야훼)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으나, 열두 번째 말라기를 허구적 인물(말라기: 나의 사자)로 장식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화해로 소예언서를 읽으려는 시도라고 제안한다.²²⁾

오경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서의 글을 적용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 전승에서 에돔과의 화해가 어떻게 오경의 글에서 비제사장의 글로 소개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최근 톰슨의 글은 오경 연구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²³⁾

3. 구약 성서에서의 에돔

1) 오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에돔

에돔(에서)에 대한 창세기의 관점은 야곱의 형제이자 야곱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언급된다(창 25-35장). 최근 드 퓨리(de Pury)는 에서와의 화해에 대한 본문을 비제사장계 문서로 읽는다.²⁴⁾ 그는 호세아 12장과 비교를 통하여 야곱 이야기의 원본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새롭게 구성된 야곱 이야기에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가 빠져있다. 이렇게 야곱 이야기의 화해 주제는 계속해서 야곱 계보로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난다. 야곱-에서 이야기의 화해 주제는 다민족 간의 화해이며, 요셉 이야기의 화해 주제는 한 민족간의 화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독립적인 단위로 해석되므로, 야곱-에돔 이야기의 화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돔에 대한 관대함과 친숙함은 민족성에 대한 친밀성

22) 조지프 블랜킨슨, 윗글, 94.

23) T. L. Thompson, “Memories of Esau and narrative reiteration. Themes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5(2) (2011), 174-200.

24) A. de Pury, 윗글, 56-57.

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이는 땅 수취 이전의 선조들의 역사에서 에돔은 이삭의 아들로 36장 9절에 나타난 족보에서 에서는 에돔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있다.²⁶⁾ 이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한 족보에서 나왔음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이 신명기 23장 7절에서 발견된다. 신명기 저자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로 기록하고 있다.²⁷⁾ 또한 중요한 본문으로 창 33장의 본문을 제안할 수 있다.²⁸⁾ 이미 언급했듯이, 이 본문은 비제사장계 본문으로 ‘화해’ 주제를 다루고 있다.²⁹⁾ 이 본문이 가치 있는 것은 비제사장계와 제사장계의 신학적 사고를 종합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이 개념은 그라우프너(Graupner)를 통하여 다시 점검할 수 있다.³¹⁾ 이와 대조적인 입장에서 민수기 20-21장(특히 20:18)인데,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감은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³²⁾

2) 역사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에돔

역사서와 예언서는 에돔에 대한 기록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사무엘상 21-22

25) 윗글.

26) J. R. Bartlett, "The Kingdom of Edom", *Irisch Biblical Studies* 10 (1984.4), 207-224.

27) J. R. Bartlett, "The Brotherhood of Edo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 (1977.4), 2-27.

28) A. Agyenta, "When reconciliation means more than the 're-remembering' of former enemies: The Problem of the conclusion to the Jacob-Esau story from a narrative perspective (Gen 33,1-17)",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83 (2007), 123-124; R. Albertz, "Die Kleinen Schritte zur Versöhnung in den Jacob-Esau Erzählungen (Gen 25-35)", R. Albertz (ed.), *Der Mensch als Hüter seiner Welt: Alttestamentliche Bibelarbeiten zu den Themen des Konziliaren Prozesses* (Calwer: Stuttgart, 1990), 132-144; C. Amos, "The Genesis of reconciliation: The reconciliation of Genesis", *Mission Studies* 23(1) (2006), 12-20; P. Berthoud, "The reconciliation of Joseph with his brothers, Gen 45,1-11(42,1-45,11) and 50,15-21", *European Journal of Theology* 17(1) (2008), 5-11.

29) 참고. Ch. Levin, 윗글 (1993), 256-257.

30) 참고. B. K. Waltke & C.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Zondervan: Grand Rapid, 2001); G.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Word: Waco, TX, 1994).

31) 참고. A. Graupner, 윗글 (2002), 379-384.

32) H. Seebass, "Edom und seine Umgehung nach Numeri XX-XXI", *Vetus Testamentum* 47 (1997.2), 255-262; B. A. Anderson, "Edom in the book of Number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4 (2012.1), 38-51.

장 이하에서 사울의 왕가에 목자장으로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윗의 가문과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후 사무엘하 8장 이하에서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을 치렀고, 역대상 18장에서도 다윗왕가와 에돔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³³⁾

3) 예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에돔

주전 7세기 말과 6세기 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질 때, 에돔은 유다의 몰락에 가담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적으로 확실하게 각인되고 있다. 예레미야 27장과 49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으며³⁴⁾, 에스겔 역시 32장과 35장 36장에서 에돔에 대한 몰락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³⁵⁾ 이후 아모스 1장과 9장, 오바다와 말라기 2장에서 다시 에돔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드 푸뤼에 의해서 제안된 호세아 12장의 야곱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³⁶⁾

주제	호세아 12장	창세기 25-35장
쌍둥이의 출생	3a절	25:21-26
야곱 이름의 기원	3a절	25:26; 27:36
형제들의 힘겨루기	3a절	25:21-26, 29-34; 27:1-45
신적 상대자와 싸움	3b절	32:23-33

33) G. Hentschel, *1 Samuel* (NEB-AT; Würzburg: Echter Verlag, 1994); G. Hentschel, *2 Samuel* (NEB-AT; Würzburg: Echter Verlag, 1994); H. J.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KA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73). 에돔을 쳐부순 자가 왕상 11장 15-16절; 시 60편 표제에서는 아비새의 형제 이자군대 장관인 요압이 언급되고 있다.

34) W. Thiel,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26-4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5-10. 예레미야 27장 3절의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은 바벨론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35) W. Zimmerli,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Ezech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F. Fuhs, *Ezechiel 1-24* (NEB-AT; Würzburg: Echter-Verlag, 1984); Brain R. Doak, "Ezekiel's topography of the (un)-heroic dead in Ezekiel 32: 17-32",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2 (2013.3), 607-624. 예언서에 언급된 방대한 적으로서 에돔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B. Dicou, 윗글.

36) A. de Pury, 윗글, 61.

이스라엘 이름의 기원	4a절	32:19
족장의 모호한 승리	4a절	32:27, 30-31
벤엘의 신현현	4b절	28:10-22; 35:1, 7
안전한 복귀 약속과 신적 보호	6절	28:15, 21; 31:13
놀라운 부를 이룸에 대한 의미	8절	30:25-31:19
길르앗의 돌 무더기	11절	31:46-54
야곱의 아람으로 도망	12a절	27:43-45; 29:1; Pg 28:2, 6-7
아내를 얻기 위한 봉사	12b절	29:15-30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돌봄	12b절	30:25-42

이 도표에서 야곱 이야기의 재구성은 적어도 문헌 가설에 의한다면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호세아 12장의 야곱 이야기 전승은 오경의 문헌 가설에 따르면, 비제사장계 본문에 속한다. 이런 비제사장계의 원 형태와 제사장계의 야곱 전승도 모두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는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이는 호세아 예언 전승에 따르면, 포로기 이전의 야곱 이야기에서는 아직 에돔과의 화해 주제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논쟁적인 것은 호세아 12장의 이야기가 최근의 학자들, 니쾨닌(M. Nissinen)이나 뢰머(Th. Römer)는 포로기 이후로 이해하고 있다.³⁷⁾

이사야서에서 포로기 이후 제안할 수 있는 본문이 34장과 63장이다. 이 본문의 이사야 예언자는 에돔을 심판한 메시아로 종말론적 배경 하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에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4) 성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에돔

에돔에 대한 증거는 시편 34편 60편 83편과 137편 108편과 애가서 4장에서

37) 본문 시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A. de Pury, 윗글, 61; M. Nissinen, *Prophetie, Redaktion und Fortschreibung im Hoseabuch: Studien zum Werdegang eines Prophetenbuches im Lichte von Hos 4 und 11* (AOAT 23; Kevelaer: Butzon & Berck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³⁸⁾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모든 면에서 특히 정신사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에서 급격하게 소용돌이에 빠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예돔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예언서의 글들뿐만 아니라 시가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여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시편 83편의 예돔을 비롯한 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포로기 이전에서 마카비 혁명 시까까지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히브리 성경인 타낙(TaNaK)으로 볼 때, 다니엘서는 성문서에 속한다. 다니엘 11장 40-45절에서 예돔에 대한 구원 언급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11장 31절의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주전 168-167년 사이에 일어난 안티오쿠스의 꺾박을 반영한다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인정한다.⁴⁰⁾ 그러나 164년에 일어난 성전 재봉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본문은 과거 남방의 강자 애굽과 북방의 강자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문은 남방왕의 대표자는 프톨레마이오스 VI, 필로메토(Philometor, 181-145)이며,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IV. 에피파네스(175-164)다.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70-168년 경에 애굽의 해군을 물리쳤다. 이에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애굽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지막 멸망의 시대를 예견한다. 31절의 상황이 주전 167년 12월 6일에 일어난 올림픽의 제우스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세웠음을 암시하면서,⁴¹⁾ 마카비 혁명이 발발하게 된 신호탄이 된다. 물론 주

38) Hans-Joachim Kraus,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Psalmen (I. 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39) Hans-Joachim Kraus, *윗글 II.* (1978), 741. 이 견해는 키텔(R. Kittel)의 주장이다. 또한 에발트(H. Ewald)는 느헤미야 4장의 모습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곤켈(H. Gunke)은 에스라와 알렉산더 왕 시대 사이로 본다. 슈미트(H. Schmidt)는 본문에서 앗수르의 등장을 근거로 인해 포로기 이전의 시기로 주장하지만, 그는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

40) 다음을 참고하라. W. S. Towner, 『현대성서주석: 다니엘서』, 신정균 번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30.

41) H. Donner, *윗글* (2001), 480.

전 164년 경, 안티오쿠스 4세는 병들어 죽게 된다. (8:26)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0-45절의 예견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된다. 여기서 다니엘서는 묵시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이웃이자 적들인 에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런 시점에서 에돔의 구원을 언급함은 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4. 종교사적으로 본 이스라엘과 에돔

야곱과 에서의 민족 대결의 구도는 오경 안에서 종종 나타난다. 특히 신명기 23장 7절에서 에돔을 받아들이는 신명기 저자는 분명히 '야훼의 총회'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에돔을 대표하는 에서의 행동은 신명기 2장 5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신명기 2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막 여행이라는 배경 위에서 접목시킨다. 우리가 이 본문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22절에서 소개하는 본문의 화자의 '오늘날'이다.⁴²⁾ 사막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내부에서 모세를 대항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를 대항한 이들은 '야훼의 총회'(크할 예호바, קהל יְהוָה)에 들어올 수 없음으로 경고하고 있다.⁴³⁾ 이런 점에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민족의 범위로 한정될 수 있으며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스라엘의 사막 경험은 예언서들에서는 부정적인 경험 또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소개되지만,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놓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가 포로기 배경

42) U. Rüt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5), 33-34.

43) 신명기 총회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민경구, "토라의 수용 및 재해석-신명기 23장 '총회법'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 (2017.6), 14-42.

으로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미 앞에서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애
 독에 대한 예언자들의 신랄한 비판과 저주들을 통하여 애독을 화해의 대상이
 아닌 적들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한편으로는 베스터만
 (Westermann)의 이해처럼⁴⁴⁾, 야곱 이야기가 야훼문서에 속하여 있음을 받아
 들이면서 동시에 야훼 문서의 야곱 이야기가 포로기 이전의 작품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다른 한 편으로는 포로기 경험이 기억될 수 없을 정
 도로 전혀 다른 세상이 왔거나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정
 치 외교적인 배경 위에서 읽을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드 푸뤼의 글에서 언
 급했듯이, 이 본문이 더 이상 야훼계 글이 아닌 비사제계 글로 신명기사가적
 편집의 흔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⁴⁶⁾ 그렇다면 이러한
 논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 주제는
 포로기의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시기에 쓰여진 문학 작품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주제임은 분명하다.⁴⁷⁾

이런 문제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창세기 33장의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
 로 돌아가야 한다. 실제로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을 툴레도트의 관점으로 읽
 어보면,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44) C. Westermann, *Biblicher Kommentar: Genesis 12-3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645-646.

45) E. W. Nicholson, "The Pentateuch in recent Research", J. A. Emerton, *Congress Volume 43* (VTSup.: Leiden, New York, København, Köln: E. J. Brill, 1991), 18. de Pury는 non-P 계열의 본문으로 포로기 이전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 본문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기원들 가운데 하나로 대표한다고 주장한다(p.71). A. de Pury, "The Jacob Story and the Beginning of the Fomation of the Pentateuch", T. B. Dozeman and K. Schmid (e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SBLSymposium No. 34: Atlanta, 2006), 71;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161-163; J. Van Seters, *The Pentateuch: A Social-Scienc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9), 108; D. M. Carr,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474-475.

46) A. de Pury, *읽기*.

47) E. W. Nicholson, *읽기* (1991), 18. 참고 H. C. P. Kim, "Reading the Joseph story as a Diaspora narrativ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5 (2013), 219-238.

11:27-25:11	데라 족보: 아브라함 이야기
25:12-18	이스마엘 족보
25:19-35:29	이삭 족보: 야곱 이야기
36:1-37:1	에서 족보-에돔 전승
37:2-50:26	야곱 족보: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아들들의 이야기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블렌킨소프의 견해처럼⁴⁸⁾, 데라 족보, 이삭 족보, 야곱 족보의 이야기는 신조 자신 보다 그 자손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드 푸뤼의 호세아 12장에 따른 분석으로 볼 때,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치는 이야기는 적어도 베스터만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포로기 시대 또는 그 이후의 상황을 가리키는 단서로 소개될 수 있다.⁴⁹⁾

이후 야곱의 경로를 따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삭 족보에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벵엘의 성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소개되고 있고, 두 번(창 28:10-22; 35:9-15)이나 야곱의 여행 경로에서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고 있다. 이 본문 또한 비제사장계 본문에 속한다. 이 예배 장소 전승은 신명기의 중앙 성소 집중화(신 12장)와 대립되는 견해이기도 하다.

야곱은 도망쳤던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베나민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으며, 돌아온 뒤, 베나민이 태어난다. 이런 과정 중, 야곱은 에서와 만나 화해하고, 에서는 세일 지역으로 돌아간다(창 33:16). 신명기 2장 4절에 따르면, 세일 지역은 분명 에돔 족속의 지역이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36장은 좀 더 자세하게 에서의 경로를 소개한다. 36장 6-8절에 따르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처럼, 에서는 야곱과 떨어져 거주한다. 여기서 주목

48) 조지프 블렌킨소프, *윗글*, 175 이하.

49) C. Westermann, *윗글*(1981), 446.

할 것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낯선 땅에서 돌아와 형 에서와 화해한다는 것이며, 이어 36장에서 에서가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야곱의 거주지에서 떠나 세일 산 지역으로 거주한다는 것이다. 형제이자 가족의 헤어짐에 대한 주제는 적어도 포로기 이후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스 10장; 느 13장)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혼인한 가족의 이별 문제다.⁵⁰⁾ 특히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은 신명기 23장 3절의 배경 위에 있다.⁵¹⁾ 그러나 더 이상 에돔 자손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총회는 민수기 16장 3절과 20장 4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대항자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여호와와의 총회’는 지극히 종교적인 요청이며 그 땅의 헌법적 의미를 포함한다.⁵²⁾ 그리고 8절에서 “삼 대 후 자손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기록하면서, 에돔에 대한 적대적 개념을 정리하려는 법 정신이 나타나 있다.

이방인 가족의 이별 문제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공동체에게 큰 위험과 혼란이 뒤를 분명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따로 거주함을 이해한다면, 좀 더 분명하게 창세기의 족장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야곱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 그리고 이어 11절에서 매우 특별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백성들의 총회”(크할 고임, כְּהֵל גּוֹיִם)는 신명

50)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최종원, *윗글* (2015). 또한 이 주제는 정결 신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B. Rausche, “The Relevance of purity in second temple judaism according to Ezra-Nehemiah”, Ch. Frevel and Ch. Nihan,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 Vol. 3; Leiden: Brill, 2013), 457-475.

51) S. Japhet, “What May Be Learned from Ezra-Nehemiah”, J. C. Gertz etc.(ed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543-560(557).

52) U. Rütterswörden, *윗글* (2005), 152.

기의 “여호와와 총회”와 매우 닮아 있다. 이스라엘과 타민족과의 대립적인 모습은 성소의 배경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가 애가서 1장 10절에서 유사하게 ‘성소’의 의미로 나타난다.

비록 이사야 63장 1-6절에서 예돔이 종말론적으로 만인의 적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사야 56장 3절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6절의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성산”에 있는 “기도하는 집”과 “제단”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고 있다. 온전한 보편주의적 신앙은 야훼 신앙으로 해석되어 포로기 이후 종말론적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5. 신명기계와 제사장계 신학 사이에 있는 화해 신학

야곱 전승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흔적들이 드 퀴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듯이, 화해 주제는 분명히 ‘제사(예배)의 땅’과 깊이 관련이 있다.⁵³⁾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에서 ‘벧엘’의 제단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의 지방 성소에 대한 개방된 개념은 신명기 12장의 중앙성소 개념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중앙 성소 개념은 신명기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정치적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집트 골라(Gola) 출신의 ‘엘레판틴’ 문서를 살펴보면, 왕정 말기에 중앙 성소 개념이 제정되었다면, 왜 포로기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성소를 지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에 상소문을 올렸단 말인가?⁵⁴⁾

53) 참조. A. de Pury, *윳글*, (1991), 10-21; A. de Pury, *윳글* (2006), 51-72.

54) H. Donner-W. Röllig, *Kanaanische und Aramische Inschriften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4), 320-324; Y. Muffs, *Studies in the Aramaic Legal Papyri from Elephantine* (Leiden, 1969); R. Yaron, *Introduction to the Law of the Aramaic Papyri* (Oxford, 1961); B. Porten & A. Yardeni, *Testbook of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TDA) A-D* (Jerusalem, 1986-1999); B. Porten, “Elephantine”, R. Westbrook (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 2*

또한 문서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는 레빈(Ch. Levin)은 창세기 33장 1a절과 4절을 야훼문서이전의 내용으로 보면서, 야훼문서의 편집자에 의하여 본문이 형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못하다.⁵⁵⁾ 이는 일반적으로 야곱 전승 본문들을 비제사장계로 분류하기 때문이며, 어떻게 비제사장계 문서에서 특별히 ‘화해’ 주제가 매우 강도있게 주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학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오경 형성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야곱 전승의 고대성을 주장하는 그라우프너(A. Graupner)는 창세기 33장 4, 5, 8-11절을 엘로힘 문서로 추정한다.⁵⁶⁾ 엘로힘 문서의 마지막 연구 논문으로 기록되는 그의 문서가설은 이미 지나간 주제로 학자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야곱 전승에서 그의 논문은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다. 어떻게 비제사장계 문서가 제사장계 문서와 함께 다루어지면서 제사장계도 아니요 비제사장계도 아닌 제 3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 의식을 이끌고 있는지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의 족보가 계보와 함께 이야기체로 그들의 주요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점이다. 이에 족보라는 ‘톨레도트’(תולדות)의 개념을 단순히 족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드 소쉬르(de Saussure)의 용어 이해처럼, 한 단어는 ‘상징’(signification)과 그 문맥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 이에 ‘톨레도트’는 족보이자 역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가족 계보가 아니며, 역사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이미 비제사장계 이야기는 족장들의 역사를 ‘약속’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입각한 이스라엘

(Leiden-Boston: Brill, 2003), 863-881.

55) Ch. Levin, *윗글* (1993), 256-257; 참조. A. Agyenta, “When reconciliation means more than the ‘remembering’ of former enemies: The Problem of the conclusion to the Jacob-Esau story from a narrative perspective (Gen 33,1-17)”,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83 (2007), 123-124.

56) A. Graupner, *윗글*, 379-384. 다음을 참고하라. H. Seebass, *Vätergeschichte II (23,1-36,4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409-411.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 가족 구성원에서 부터 다민족 혈통을 소개하며, 야곱의 12지파 역시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여종 들(레아-실바, 라헬-빌하)을 통해서 '단, 납달리, 갓, 아셀'이라는 혼혈지파가 탄생된다(창 30장). 이러한 혼혈 족보는 유다에서도 발견되는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를 통하여 세 아들을 얻고, 이후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된다. 이 계보는 이후 성문서의 룻기에서 베레스 가문과 이어지며,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게 된다(룻 4장). 성문서의 세계는 분명 신명기 23장에서 언급한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과 암몬에 대한 거부 표시이다. 그러나 에돔을 다행히 신명기계 저자는 수용한다. 이는 족장사의 화해 운동이 신명기계 신학을 부분적으로 선택한 결과임을 암시한다.

가족사의 다문화 배경은 에스라-느헤미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레위기에 근거한 정결 문제에 대하여 포로기 골라 공동체는 소위 '그 땅의 백성'이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다문화 가정과 접목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배경은 창세기의 족장들의 가족사와 매우 가깝게 보이며, 그 해결 방법은 매우 다르다.⁵⁷⁾

창세기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단면을 소개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적어도 다민족에 대한 포용성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이 에돔 전승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프라이(P. Frei)가 언급한 "페르시아 제국 승인설"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한다.⁵⁸⁾

이미 앞에서 렌토르프(Rendtorff)가 제안하고 있듯이, 큰 단일체 이야기들

57) 최중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56집 (2015년 6월), 122-154.

58) P. Frei, "Die Persische Reichsautorisation. Ein Oberblick",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1-35.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장 루이 스카, 『모세 오경 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로로, 2016), 390-403.

은 각각 6가지의 주제⁵⁹⁾로 서로 편집되어 있다.⁶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족보로 나열된 창세기에서 각각 족장들은 이스라엘 족장을 지향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대립과 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 간의 화해가 창세기 안에서 소위 ‘더 큰 단일체’ 안에 주요한 주제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전승사적 관점에서 원천 자료의 가능성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한다. 오히려 제사장계와 비제사장계의 복잡한 신학적 편집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제시하여 새 시대에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음을 인지하게 한다. 이는 분명 묵시적 종말론의 발현 시대와 그리 멀지 않다.

6. 결론

본 연구는 ‘화해 운동(신학)’이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신사적 연구는 오경의 최종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오경 형성에 대한 소위 ‘페르시아 제국인가설⁶¹⁾’은 이미 오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법전들’의 내용과 페르시아 제국법과의 상충된 내용과 신의 개념 역시 페르시아의 신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 또한 어떠한 곳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인가에

59) 렌토르프는 6개의 ‘더 큰 단일체’를 소개한다: 기원의 역사(창 1-11장), 성조들의 역사(창 12-50장), 이집트 탈출(출 1-15장), 광야 행진(출 16-18장; 민 11-20장), 시내산 이야기(출 19-24장), 정복(여호수아).

60) 장 루이스카, 윗글, 248.

61) 참고. P. Frei/K. Koch, *Reichsidee und Reichsorganisation im Perserreich*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55: Freibu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P. Frei, “Die persische Reichsautorisation. Ein Überblick”,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1-35; J. Wiesehöfer, “Reichsgesetz’ oder ‘Einzelfallgerechtigkeit’? Bemerkungen zu Peter Freis These von der achaimenidischen ‘Reichsautorisation’”,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36-46; U. Rütterswörden, “Die Persische Reichsautorisation der Thora: fact or fiction?”,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47-61.

대한 언급은 암시 조차 발견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곱 전승에서의 다양한 예배 장소와 화해 운동이 페르시아의 중앙 집권적 정책에 반한다는 점에서 오경 형성이 페르시아의 제국법과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점에서 오경의 제사장적 개념의 최종 편집설은 이미 제기되는 수많은 비야웨계 문서들의 시기가 제사장적 문서의 시기보다 더 후대임이 증명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본 논문은 새로운 오경의 형성 모습을 제시한다. 즉, 문서 설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전승들의 복합체들의 연결과 그 가운데 편집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페르시아 말기 또는 아직 오경이 헬라 문화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개념에 대하여 새롭게 학문적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고 있다.⁶²⁾ 이미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화해’ 주제는 왕정 시대의 개념이라기보다 시기적으로 페르시아 말기에 나타난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오경 안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화해 신학을 강조하는 족장 이야기에서 다양한 예배 장소들은 신명기 12장의 정치적인 중앙 성소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민족들 간의 화해를 통하여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지향성은 이사야 56-66장에서 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적어도 유다 지파의 다민족화 입장을 근거로 메시아 시대를 열망하는 공동체로 볼릴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 11장 41절에서 에돔의 존귀한 자들에 대한 구원 언급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교적 시각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본문이 된다. 그러므로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아닌 포용성은 창세기의 ‘화해’ 주제를 페르시아 말기 혹은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제시해

62) 에리히 쉐어는 자신의 글에서 페르시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오경편집시기를 제한 한다: “오경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이나 헬레니즘과의 대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2012, 215).

주고 있다.⁶³⁾ 이러한 개념은 오경의 형성을 새로운 비평방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또한 아직까지 미흡한 페르시아 말기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왜 오경이 형성되어야 했는지를 다시 연구할 수 있도록 구약학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7. 참고문헌

- 김필희, “호세아 12장의 야곱 전승”, 『구약논단』 16권 3호(2010년 10월), 216-236.
- 민경구, “토라의 수용 및 재해석-신명기 23장 ‘총회법’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64집 (2017.6), 14-42.
-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2012).
-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조지프 블렌킨소프, 『모세오경-성경의 첫 다섯 권 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서와 함께, 2006).
- 장 루이스카, 『모세오경입문』, 박요한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162).
-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56집 (2015년 6월), 122-154.
- Towner, W. S., 『현대성서주석: 다니엘서』, 신정균 번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Agyenta, A., “When reconciliation means more than the ‘remembering’ of former enemies: The Problem of the conclusion to the Jacob-Esau

63) P. Bienkowski, “New evidence on Edom in the Neo-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J. Andrew Dearman and M. Patrick Graham,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Essays o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in Honor of J. Maxwell Miller* (JSOTSup 34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98-213.

- story from a narrative perspective (Gen 33,1-17)",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83 (2007), 123-134.
- Albertz, R., "Die Kleinen Schritte zur Versöhnung Wagen: Streit und Versöhnung in den Jacob-Esau Erzählungen (Gen 25-35)", in R. Albertz (ed.), *Der Mensch als Hüter seiner Welt: Alttestamentliche Bibelarbeiten zu den Themen des Konziliaren Prozesses* (Calwer: Stuttgart, 1990), 132-144.
- Amos, C., "The Genesis of reconciliation: The reconciliation of Genesis", *Mission Studies* 23(1) (2006), 12-20.
- Anderson, B. A., "Edom in the book of Number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4 (2012, 1), 38-51.
- Bannett, C.-M., "Excavations at Buseirah (Biblical Bozrah)", in J. F. A. Sawyer and D.J.A. Clines (eds.), *Midian, Moab and Edom: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Late Bronze and Iron Age Jordan and Northwest Arabia* (JSOTSup, 24; Sheffield: JSOT Press, 1983), 9-17.
- Bartlett, J. R., "The Brotherhood of Edo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 (1977, 4), 2-27.
- Bartlett, J. R., "The Kingdom of Edom", *Irish Biblical Studies* 10 (1984, 4), 207-224.
- Berthoud, P., "The reconciliation of Joseph with his brothers. Gen 45,1-11(42,1-45,11) and 50,15-21", *European Journal of Theology* 17(1) (2008), 5-11.
- Bienkowski, P., "Edom and Edomite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22 (1992, 2), 139-142.
- Bienkowski, P., "New evidence on Edom in the Neo-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in: J. Andrew Dearman and M. Patrick Graham (ed.),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Essays o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 of the Ancient Near East in Honor of J. Maxwell Miller* (JSOTSup 34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98-213.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 Blum, E., “Gibt es die Endgestalt des Pentateuch?”, in: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uven: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1991), 46-57.
- Carr, D. M.,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Coats, G. W., “Strife without reconciliation: A narrative theme in the Jacob tradition”, in R. Albertz, H. P. Müller & H. W. Wolf (ed.), *Werden und Werken des Alten Testament, Festschrift C. Westermann* (Neukirchener: Neukirchen-Vluyn, 1980), 82-106.
- Crüsemann, F., “Dominium, guilt and reconciliation: The contribution of the Jacob narrative in Genesis to political ethics”, *Semeia* 66 (1994), 67-77.
- Dicou, B., *Edom, Israel's Brother and Antagonist. The Role of Edom in Biblical Prophecy and Story* (JSOTSup 169; Sheffield: JSOT Press, 1994)
- Doak, Brain R., “Ezekiel's topography of the (un)-heroic dead in Ezekiel 32: 17-32”, *Journal of the Biblical Literature* 132 (2013. 3), 607-624.
-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1*, ATD Ergänzungsreihe 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2*, ATD Ergänzungsreihe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 Donner, H.-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Wi-

- esbaden: Otto Harrassowitz, 1964), 320-324.
- Frei, P./Koch, K., *Reichsidee und Reichsorganisation im Perserreich* (OBO 55; Freibu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 Frei, P., “Die persische Reichsautorisation. Ein Überblick”,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1-35.
- Fuhs, F., *Ezechiel 1-24* (NEB-AT; Würzburg: Echter-Verlag, 1984).
- Graupner, A., *Der Elohist. Gegenwart und Wirksamkeit des transzendenten Gottes in der Geschichte* (WMANT 97;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 2002).
- Hentschel, G., *1 Samuel* (NEB-AT; Würzburg: Echter Verlag, 1994^ㄱ).
- Hentschel, G., *2 Samuel* (NEB-AT; Würzburg: Echter Verlag, 1994^ㄴ).
- Japhet, S., “What May Be Learned from Ezra-Nehemiah”, in: J. C. Gertz etc. (ed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6), 543-560.
- Kim, H. C. P., “Reading the Joseph story as a Diaspora narrativ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5 (2013), 219-238.
- Kraus, H.-J.,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Psalmen (I. 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Ku, Cha-Yong, *Weisheit in der Thronfolgegeschichte Davids. Eine literarkritische und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der Weisheits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ihrer Ironisierung* (Diss.; Bonn, 2009).
- Levin, Ch., *Der Jawist, Forschungen zur Religion und Literatur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FRLANT 157;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93).
- Long, B. O., “A Darkness between Brothers: Solomon and Adonij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9 (1981), 79-94.

- Muffs, Y., *Studies in the Aramaic Legal Papyri from Elephantine* (Leid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 Nicholson, E. W., “The Pentateuch in recent research: a time for caution”, in: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uven: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1991), 10-21.
- Nissinin, M., *Prophetie, Redaktion und Fortschreibung im Hoseabuch: Studien zum Werdegang eines Prophetenbuches im Lichte von Hos 4 und 11* (AOAT 23; Kevelaer: Butzon & Berck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 Porten, B., “Elephantine”, in: R. Westbrook (ed.),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 2* (Leiden-Boston: Vandenhoeck & Ruprecht, 2003), 863-881.
- Porten, B. & Yardeni, A., *Textbook of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TDA) A-D* (Jerusalem, 1986-1999).
- de Pury, A., “Le cycle de Jacob comme légende autonome des origines d’Israël”, in: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uven: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1991), 78-96.
- de Pury, A., “The Jacob Story and the Beginning of the Fomation of the Pentateuch”, in: T. B. Dozeman and K. Schmid(ed.),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SBLSymposium No. 34; Atlanta: SBL, 2006), 51-72.
- Von Rad, G., *Genesis* (Old Testament Library; SCM: London, 1981).
- Rausche, B., “The Relevance of purity in second temple judaism according to Ezra-Nehemiah”, in: Ch. Frevel and Ch. Nihan,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 Vol. 3; Leiden: Brill, 2013), 457-475.

- Rüterswörden, U., “Die Persische Reichsautorität der Thora: fact or fiction?”,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47-61.
- Rüterswörden, U., *Das Buch Deuteronomium* (NSK. 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5).
- Schmidt, W. H., “Elementare Erwägungen zur Quellenscheidung im Pentateuch”, in: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E. J. Brill, 1991), 22-45.
- Seebass, H., *Vätergeschichte II* (23,1-36,4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 Seebass, H., “Edom und seine Umgehung Nach Numeri XX-XXI”, *Vetus Testamentum* 47 (1997.2), 255-262.
- Seidl, T.,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ner controversies and tensions as places of Israel’s self-conception in the patriarchal traditions of Genesis”, *Old Testament Essays* 26(3) (2013), 841-842.
- van Seters, J., “The Primeval Histories of Greece and Israel Compared”,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0 (1988), 1-22.
- van Seters, J.,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redaction of the Pentateuch”, in: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43* (Leuven: Leiden, New York, Kobenhavn, Köln, 1991), 58-77.
- van Seters, J., *The Pentateuch: A Social-Scienc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9).
- Snyman, F., “Aspekte van versoening in die boek Genesis”, in: <http://www.hts.org.za/doi/10.4102/hts.v71i1.2984>.
- Stoebe, H. J., *Das erste Buch Samuelis* (KA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73).
- Taggar-Cohen, A., “The covenant as contract: Joshua 24 and the Legal Ara-

- maic Texts from Elephantine”, *Zeitschrift für die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1 (2005), 27-50.
- Thompson, T. L., “Memories of Esau and narrative reiteration. Themes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5(2) (2011), 174-200.
- Thiel, W.,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26-4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 Waltke, B. K. & Fredricks, C. J., *Genesis: A commentary* (Zondervan: Grand Rapids, 2001).
- Wenham, G. J., *Genesis 16-50* (WBC; Word: Waco, TX, 1994).
- Westermann, C., *Biblischer Kommentar: Genesis 12-36* (Neukirchen Verlag: Neukirchen, 1981).
- Westermann, C., *Biblischer Kommentar: Genesis 37-50* (Neukirchen Verlag: Neukirchen, 1982).
- Wiesehöfer, J., “Reichsgesetz’ oder ‘Einzelfallgerechtigkeit’? Bemerkungen zu Peter Freis These von der achaimenidischen ‘Reichsautorisation’”,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 (1995), 36-46.
- Yaron, R., *Introduction to the Law of the Aramaic Papyri* (Oxford, 1961).
- Zimmerli, W.,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Ezech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검색어

화해 신학

오경 형성사

제사장계 신학과 비제사장계 신학

페르시아 말기의 종교와 정치

야곱-에서 전승

포르기 이후의 에돔

Reconciliation Theology in the History of Religion in Israel

Jong-Won Choi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Dr.theol.

This paper examines through tradition criticism the role of the 'reconciliation movement' in Genesis in the religion history of Israel and how it influences the final formation of the Pentateuch.

The story of Jacob-Esau (Gen 33) is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role of the Edomites in the Book Samuel and that of Edom in the Pentateuch. Here this concept is closely linked to the 'reconciliation movement' in the books of the prophets. Edom in Jeremiah 27 and 49, and Ezekiel 32-36 also reflects its historical activities in the seventh and sixth centuries BCE. Edom continues to be negatively introduced in Amos, Obadiah, and Malachi from Israel's perspective.

At this point, the theme of 'reconciliation theology' is likely to be the theme that

www.kci.go.kr

appeared in the late Persian period rather than the concept of the monarchy age. Therefore, the final editing of the Pentateuch as the priestly concept suggests that the time of many of the non-Yahwistic documents already raised is later than the time of the priestly documents, and thus it also suggests a new formation of the Pentateuch.

Keywords

reconciliation theology

the formation history of the Pentateuch

P and non-P theology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late Persian period

Jacob-Esau tradition

Edom in the post-Exile

- 투고일: 2019년 3월 30일
- 심사일: 2019년 4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4월 29일